

갑골문을 통해 본 商代의 生活經濟官吏

李 璟*

차 례

- I. 머리말
- II. 상대의 생활경제 관리
 - 1) 농경관
 - 2) 목축수렵관
 - 3) 의료관
- III. 맺음말

I. 머리말

상대의 사회 문화는 매우 발전된 생활 여건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채집을 통해 얻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재배·수확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미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한편, 쓰임에 따라 세분화된 농기구로 대량 수확할 수 있었고 야수를 잡는 위험에서 벗어나 일년 내내 사람들의 육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수량의 가축을 사육하게 되었다. 수렵 또한 왕의 활발한 야외활동 중 하나로 전문적인 수렵관들과 함께 날짐승, 들짐승을 고루 포획하였다. 이 시기의 수렵은 이미 생계수단이 아닌 군사훈련 및 귀족들의 오락적 역할로 발전한 상태였다.¹⁾ 의료계통을 보면 갑골문의 疾자는 침대에 누워 땀 혹은 피를 흘리는 모양과 몸에 화살이 박힌 모양의 두 가지 용법으로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BK21연구원, paster0228@naver.com

1) 劉興林, 「殷商以田獵治軍事說質疑」, 『殷都學刊』, 1997.

사용하여 이미 外傷과 內傷을 구분하였다. 내상은 신계 치유를 간구하였고, 외상에 관해서도 독특한 치료법이 있었다. 이러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醫官도 두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生活經濟官吏는 농업, 목축, 수렵, 의료 등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리들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의 지위는 높지 않고, 심지어는 노예출신도 있었으나 왕의 건강 및 왕실에 필요한 주요 수입원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농업계에 종사하는 관리로는 小耨臣, 小衆人臣, 小吏臣이 있으며, 수렵계 관리로는 牧, 犬, 馬, 馬小臣이 있다. 小疾臣은 질병을 담당하는 관리로 상왕의 전담 주치의이기도 했다. 이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 상대의 생활경제 관리

1) 농경관

농업의 발달은 한 부락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를 이루도록 한다. 이미 건대한 국가를 이룬 상대는 경제 사회의 주력 산업이 농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당시 중요 농업 지역은 이미 100여 곳이 넘으며 상왕이 이들 지역의 풍성한 수확을 묻는 복사가 무수히 발견되는 점으로도 농업의 규모와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 상대의 농작물에는 禾, 黍, 麥, 稻, 高粱 등의 곡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들 외 桑, 麻 등 견직원료의 생산까지 이루어졌고 이들을 재배할 때 쓰이는 농기구 또한 力, 耒, 辰(대합조개) 등 쓰임새 별 여러 종류가 존재했다. 이 밖에 관개를 위한 도랑의 발견이나 그 당시 곡물 생산이 매우 풍족했음을 알려주는 30여종이 넘는 酒器의 발견 등은 상대의 농업 수준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농업을 행사했던 상대라면 분명 왕이나 백성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관리가 있기 마련인데 갑골 복사를 살펴보면 이들로 추정되는 몇몇 관직이 존재한다. 이들에 관해 살펴본다.

(1) 小耜臣

‘小耜’이란 노에 신분에 해당하는 신하를 뜻하며, ‘小’자와 ‘臣’자 사이에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를 넣어 官僚名을 만들었다. 小耜臣은 농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이다. 갑골문의 ‘耜’자는 ‘耒’ (『前』 7.15.3) 모양으로 사람이 쟁기를 잡고 밭로 땅을 디디며 경작하는 모양이다. 명칭만으로 추측한다면 小耜臣은 농경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갑골 복사에는 小耜臣으로 활동했던 ‘癸’라는 인물이 발견된다. 그의 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小耜臣의 구체적인 업무 상황을 알 수 있다.

- [1] 己亥卜, 貞 : 令癸小耜臣. (『合集』 5603)
 己亥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 癸에게 小耜臣을 명할까요?
 [2] 己亥卜……令癸……耜臣. (『合集』 5604)
 己亥일에 점을 치고……癸에게 명……耜臣.

西周 中期의 銘文기록에 의하면 耜田은 周王이 耜田禮를 행하는데 쓰이며 종묘에 바치는 토지였다.²⁾ 이 곳을 司徒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는데³⁾ 상대의 小耜臣은 司徒의 원시 관리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⁴⁾ 또한 아래에 제시된 복사에서 癸라는 인물의 활동을 통해 小耜臣이 농경관이었음을 더욱 증명할 수 있다.

- [3] 己酉卜, 貞 : 令癸省在南廩. 十月. (『合集』 9638)
 己酉일에 점치고 묻습니다 : 癸에게 명령하여 남쪽의 곡식창고를 시찰하도록 할까요?
 10월에.
 [4] 庚子卜 : 令癸省廩. (『合集』 33237)
 庚子일에 묻습니다 : 癸에게 곡식창고를 시찰하도록 명할까요?
 [5] 己丑卜 : 令癸省廩. (『合集』 屯204)
 己丑일에 묻습니다 : 癸에게 곡식창고를 시찰하도록 명할까요?

2) 張亞初·劉雨, 『西周金文官制研究』, 中華書局, 1986, p.8.

3) “…令汝作司徒(徒), 官司耜田.” (『嘯堂』 9·33)

4) 張亞初, 『商代職官研究』, 『古文字研究』 第13輯, 中華書局, 1986.

𠄎는 갑골문에서 武官으로 전쟁에 참여하거나 농업 및 백성들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위 복사에서 小耨臣으로 임명받은 𠄎가 각 지역의 곡식창고를 시찰하는 것은 농경관으로서의 직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2) 小衆人臣

小衆人臣은 농업생산자들인 衆人을 관리하는 관직이다. '衆人小臣'이라고도 한다. 갑골문의 '衆'자는 '衆' (『前』 7.30.2) 모양으로 태양 아래 세 사람이 모여 있는 형상이다. 표현된 것은 세 명이나 數的으로 많은 사람들을 뜻한다. 갑골 복사에서 '衆人'은 '衆'으로 생략해 쓰이기도 한다. '衆' 또는 '衆人'은 商代의 평민이다.⁵⁾ 춘추전국시대 평민들이 평소엔 농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가 되어 전쟁을 하듯 商代에도 일반 평민들은 전쟁 시 국가 군대의 주력병사이자 평상시 농업생산의 주요 일원이었다.⁶⁾

[6] 貞： 𠄎呼小衆人臣。(『合集』5597)
문습니다： 𠄎를 小衆人臣으로 명할까요?

위 복사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몫인 小衆人臣의 직책을 𠄎에게 맡겼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확인할 수 없으나 小衆人臣이란 관직이 존재했음을 알게 해 주는 중요한 복사이다.

[7] 貞： 惟小臣令衆黍。一月。(『合集』12)
문습니다： 小臣에게 衆人들을 부려 기장을 심게 할까요? 1월에.

5)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3, p.926.

6) 衆은 商代 井田制 농촌사회의 농민이자 병사다. 복사 "壬寅卜, 賓貞： 王往以衆黍于商。"(『合集』10)을 보면 상왕이 衆을 이끌고 농업활동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왕이 직접 농사를 한 것이 아닌 籍田의 禮같은 儀式性 활동을 행한 것이다. 이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衆은 소수의 상류층이며 1969년~1977년 殷墟西區에서 발굴된 殷代의 평민묘 중 일부의 묘에서 상층민만이 가질 수 있는 禮器가 출토된 것이 증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衆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衆은 황무지개간이나 파종, 수확 등 농업을 위해 징집되는 평민이다. 이들은 국가군대의 주요 구성성분이 되기도 한다. 商代 후기의 군대조직을 보면 衆으로 구성된 左, 右旅가 있어 王族의 旅와 함께 三師라 불린다. 聶玉海, 「卜辭中'衆'與周之'國人'比較」, 『殷都學刊』 第4期, 1985.

위의 [7] 복사는 小臣이 衆人들을 부려 농업에 관한 일을 하게끔 명령하는 내용의 복사다. 小臣으로 생략되어 쓰였지만 衆人들을 직접 부리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관장하는 小衆人臣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小衆人臣에 관한 복사는 아쉽게도 극히 적어 자세한 활동 상황을 엿볼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하급계층 속에서 평민들을 관리하는 長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小衆人臣일 것이다.

(3) 小吏臣

小吏臣은 농경관으로서 수확을 담당하는 관리이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매우 적으나 字解와 갑골문의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활동상을 추측해볼 수 있다. 小吏臣의 '세'자는 갑골문의 '箕' (『合集』 9558)자이다. 裘錫圭는 농기구를 이용하여 벼의 밀을 베는 형상으로 보아 곡물을 수확한다는 의미인 '세'자로 고석했다.⁷⁾ 본 고에서도 그의 의견을 따라 '세'로 풀이했다.

[8] 貞：王往立刈黍于□。(『合集』 9558)

문습니다 : 왕이 친히 某 지역으로 가서서 곡식을 수확할까요?

[9] ……小吏臣□…… (『合集』 9017正)

……小吏臣……

[8] 복사를 보면 '立刈黍'라고 하여 왕이 친히 곡식을 수확하는 행사를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복사에서는 '小吏臣'이라는 관명이 발견됨에 따라 왕 외에도 곡식의 수확과 관련된 이러한 행사를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관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세'는 '곡식의 수확'을 의미하므로 小吏臣은 이와 관련된 농경 관임을 알 수 있다.

2) 목축·수렵관

일반적으로 목축은 농업보다 일찍 발전되었는데 상대도 예외가 아니다. 원시시대

7)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農業」, 『殷都學增刊』, 1985.

에는 고기를 얻어 식생활을 꾸려가고 모피를 의복의 중요 재료로 사용하면서 수렵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가죽, 털, 우유 등과 같은 부산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육을 하게 되었다. 상대에 들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목축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국가 행사 중 하나인 제사가 진행되면서 제수품이 올려 졌기 때문이다.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동물이다. 제물로 쓰이는 동물에는 소, 양, 돼지, 개, 말, 사슴 등 10여 종에 이른다. 주변방국의 공납품이나 전리품에서 온 것도 있으나 상당수가 상 왕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충당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상대의 목축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다음은 상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바치는 내용의 복사로, 그 당시 목축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10] 丁巳卜, 爭貞 : 降𠄎千牛. (『合集』1027正)

丁巳일에 짐을 치고, 爭이 묻습니다 : 𠄎의 방법으로 천 마리 소를 바쳐 降祭를 지낼까요?

천 마리나 되는 물량의 소를 한 번에 바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복사 내용으로 보면 천 마리를 올리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수량으로 보아 그 만큼 상대 목축의 규모가 크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郭沫若 또한 상대의 목축업 수준을 평하여 이르길 “已可斷定商代是牧畜最蕃盛的時代。”라고 하였다.⁸⁾ 갑골 복사를 살펴보면 상대에는 이미 牛나 羊, 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야생 및 人工의 방법⁹⁾으로 방목하였고, 상왕은 각기 지역에 전용 목장을 두어 때때로 이곳을 순시하는 한편 목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관리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했다.

8) 郭沫若 “已可斷定商代是牧畜最蕃盛的時代。(상대는 이미 목축업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라고 단정할 수 있다.)” 『郭沫若全集·歷史編』 第一卷, 人民出版社, 1982, p.207.

9) 상대 목축업의 방목방법은 ‘野放’과 ‘人工放牧’ 두 가지로 나뉜다. ‘野放’은 동물들을 야외에 풀어 놓고 스스로 살게 하며 가두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야외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끔류도 야생의 특징을 나타내 필요시 수렵의 방법으로 포획해야한다. ‘野放’보다 많이 쓰이는 방법은 ‘人工放牧’이다. 이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목장 내에 가축을 풀고 방목한다. 王宇信·楊升南, 『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pp.545~546.

(1) 牧

牧은 목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관리이다. 갑골문의 '牧'자는 '𠂔'(『乙』 1277) 모양으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소나 양을 부리는 모양이다. 또는 옆에 行자를 넣어 소나 양을 길로 몰아가는 것을 표현했다.¹⁰⁾ 『說文解字』에서는 '牧'을 "牧, 養牛人也."¹¹⁾라 풀이하였다. 『說文解字』의 설명과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牧은 동사로서 '방목하다', 명사로서 '가축을 방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갑골 복사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본다.

- [11] 甲戌卜, 賓貞 : 在易牧隻羌. (『合集』 22318)
甲戌일에 점을 치고 賓이 묻습니다 : 易지역의 牧이 羌人을 잡을까요?
- [12] □□卜 : ……在𠂔牧. (『合集』 35240)
□□일에 점을 칩니다 : 𠂔지역의 牧……
- [13] 甲辰卜 : 在片牧…… (『合集』 屯2320)
甲辰일에 점을 칩니다 : 片지역의 牧이……

위 복사에서 '在易牧', '在𠂔牧', '在片牧'은 각각 '易', '𠂔', '片'지역에 주재하는 牧이란 뜻이다. 상왕은 도읍 이외의 여러 지방에 목장을 두고 경영했으며, 매 지역의 목장마다 그 곳을 업무를 관장하는 牧이 파견되어 있었다.¹²⁾

- [14] 呼牧于朕芻. (『合集』 148)
牧에게 명령하여 짐의 노예에게……

상술했듯 牧은 비교적 동물들을 자유롭게 방목하기 수월한 외곽에 거주하며 목축의 업무를 담당했다.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 명칭과 결합되어 '在某牧'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14]에서는 지명이 없고 牧만 쓰였다. 이는 여기저기 떠돌며 유목생활을 하는 牧이거나, 목축 업무를 총 관리하는 '牧官의 長'일 가능성이 있다.¹³⁾

10) 王宇信·楊升南, 『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p.546.
11) 許慎 撰·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2003, p.126.
12) 王宇信·楊升南, 『甲骨學一百年』, pp.553~556.

牧이 목축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노동력이 필요하다. 많은 가축을 관리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소수의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 복사를 보면 牧에게는 목축을 담당하는 전문 노예인 芻가 딸려있어 이들을 거느리며 직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 도중 필요시엔 왕에게 직접 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 [15] □……以芻于巧. (『人文』424)
□……芻를 巧으로 보낼까요?
[16] □□卜 : ……在巧牧. (『合集』35240)
□□일에 점을 칩니다 : 巧지역의 牧……
[17] 牧致芻于執. (『合集』104, 105)
牧이 芻를 執지역으로 보낼까요?

[15]는 芻를 지역 巧으로 보내는 내용의 복사로 芻는 풀을 베고 목축의 일을 하는 노예이다.¹⁴⁾ [16] 복사를 보면 巧지역에는 牧이 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와 [16] 복사를 연관 지어 보면 芻는 巧지역에 주재하는 牧의 일을 돕기 위해 보내지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7]은 좀 더 확실한 내용으로, 執지역에 어떤 일로 인력이 부족하자 牧이 芻를 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부터 芻는 牧이 관리하는 노예임을 알 수 있다.

牧은 관할지역에서 수시로 羌人들을 포획하였다. 포로로 잡은 羌人들을 제사 시 제물로 바치기도 했는데, 이는 방목하는 과정 중 그들과 만나고 싸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 [18] 丁酉卜, 爭貞 : 在巧□安來羌二人(于)丁用. (『合集』228)
丁酉일에 점을 치고 爭이 묻습니다 : 巧지역의 □인 奚가 羌人 2 명을 잡아

13) 裘錫圭, 「甲骨卜辭中所見的‘田’, ‘牧’, ‘衛’等職官的研究」, 『文史』 第19輯, 1983.

14)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第1冊, p.890.

와 祖丁에게 征祭를 지내는데 쓸까요?

[19] 牧獲羌. (『合集』 英598)

牧이 羌人을 잡을까요?

[20] 甲戌卜, 賓貞 : 在易牧獲羌. (『珠』 758)

甲戌일에 점을 치고 賓이 묻습니다 : 易지역의 牧이 羌人을 잡을까요?

[18] 복사의 '在 𠄎'에서 牧이 빠져있으나 상술한 [16] 복사의 '在 𠄎牧'으로 빠진 글자를 유추할 수 있다. 내용은 牧이 羌人 두 명을 포획하여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릴지를 묻는 복사이다. 다음 복사는 문장의 대부분이 빠져있으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다.

[21] ……牧以羌…… (『合集』 281)

……牧이 羌人을……

[22] ……[牧]來羌…… (『明后』 2510)

……[牧]이 羌人을 잡아……

[21] 복사는 '牧以羌' 외에 알아 볼 수 없으나 '以'의 쓰임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以'는 '공납하다'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다.¹⁵⁾ 따라서 羌人을 포로로 잡아 상부에 공납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2] 복사의 '[牧]來羌'은 상술한 [18] 복사의 '在 𠄎妥來羌'과 어휘사용이 비슷하다. 牧이 羌人을 포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축사업은 국가의 중대 사업이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왕은 자신이 직접 목장을 순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복사는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23] 貞 : 王往省牛于敦.

貞 : 王勿往省牛于敦. 三月. (『合集』 11171)

묻습니다 : 왕이 敦지역의 목장을 순시하러 갈까요?

15) 趙誠, 『甲骨文簡明辭典』, 中華書局, 1999, p.321.

문습니다 : 왕이 敦지역의 목장을 순시하러 가지 말까요? 3월에.

[24] 貞 : 王往省牛. (『合集』 11175)

문습니다 : 왕이 목장을 순시하러 갈까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은 직접 목장을 방문해 감독·관리하는 한편, 순시할 수 없을 시에는 牧이 왕에게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25] □子, 貞 : 牧告畿…… (『合集』 屯149)

□子일에 문습니다 : 牧이 畿지역……의 일을 고할까요?

[26] 辛未, 貞 : 三牧告. (『合集』 屯1024)

辛未일에 문습니다 : 세 명의 牧이 보고할까요?

정기적으로 제사가 주관되는 만큼 목장 일에 관한 상황보고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위의 [25]는 무슨 일을 고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牧이 자신의 속한 지역의 일을 고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26] 복사에서 여러 명의 牧이 함께 고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여러 복사에서 알 수 있듯이 牧은 상왕에 의해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 그 지방의 목장을 운영하며 국가의 사업을 도모했다. 목축관리는 물론 방목 시 만나게 되는 적들을 생포하여 제물로 바치거나 노예로 거느리기도 했다. 왕이 직접 목장 순시를 나선 일들과 각 지역 牧官들의 보고상황을 알리는 복사는 상대 목축업과 이를 주관하는 牧官의 중요도를 가늠케 한다.

(2) 犬

犬은 수렵 활동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주로 산 속의 새나 들짐승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왕실에 보고하며 왕이 사냥을 할 때 원활히 수렵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들의 직무특성인 산림지의 파악과 사냥능력은 전쟁에도 필요한 것이어서 왕은 유사 시 이들을 파견하여 방국 정벌 및 순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갑골문의 犬자는 ‘犬’ (『后下』 34.7)모양으로 배가 훌쩍하고 긴 꼬리가 날렵해 보이는 개를 나타내고 있

다. 갑골문의 '狩'자는 '𠄎'(『佚』149)모양으로 '수렵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사냥할 때 쓰는 도구인 '干', '單'에 '犬'자를 합쳤다. 이로부터 당시의 사냥에는 개가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관리에도 같은 이름을 붙여 썼다. 복사를 통해 관리 '犬'의 활동을 살펴본다.

- [27] 乙酉卜：犬來告有鹿，王往遂……（『合集』屯997）
乙酉일에 짐을 칩니다：犬이 사슴이 있다고 고하는데 왕이 가서……
- [28] 孟犬告鹿，王其從……（『存』2.821）
孟지역의 犬이 사슴을 발견했다고 고하는데 왕이 …… 좇을까요?
- [29] 在孟犬告豚于𠄎，王其從。（『合集』28896）
孟지역의 犬이 某地에서 멧돼지를 발견했다고 고하는데 왕이 좇을까요?

위는 犬의 본 업무를 나타내는 복사이다. 犬이 사슴이나 멧돼지를 발견하고 왕에게 고하자 왕이 이를 좇을지 묻는 내용의 복사이다. 왕은 수렵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犬官의 보고를 받아 사냥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비로소 사냥을 시작했다.

- [30] 𠄎在襄犬壬從，亡災，擒。（『合集』屯625）
襄지역의 犬官인 壬이 좇으면 재앙이 없을까요? 잡을까요?
- [31] 𠄎在瀘犬中從，亡災，擒。（『合集』屯625）
瀘지역의 犬官인 中이 좇으면 재앙이 없을까요? 잡을까요?

위의 복사는 犬官이 수렵 활동에 따라오면 재앙이 있을지, 짐승을 포획할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상대에는 왕실의 모든 일을 짐치고 물어서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왕은 사냥을 떠나기 전 자신을 수행할 犬을 골라 짐을 치고 이들과 함께하면 성공적인 사냥이 될 것인지 살폈다.

犬은 본 업무인 수렵 활동 외에 전쟁이나 방위 활동에도 참가하였다. 사냥감의 존재를 찾고 수렵하는 그들의 특성은 유사시 적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32] ……戌……犬延允伐……方. (『合集』33033)
 ……戌일에……犬官인 延이……方을 정벌하도록 할까요?
 [33] 乙丑卜 : 犬伐…… (『合集』33400)
 乙丑일에 짐을 칩니다 : 犬이……정벌할까요?

위의 복사들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32] 복사는 犬을 방국정벌에 참여시킬지의 여부를 점치고 있으며 [33] 복사는 犬의 정벌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직접적인 정벌 활동 외에 왕을 대신하여 각 지방을 순시하며, 적군을 물리치고 국토를 방위하는 활동도 했다.

- [34] 貞 : ……呼犬_𠂔省從南. (『合集』10976正)
 문습니다 : ……犬_𠂔에게 명령하여 남쪽으로 가서 순시하라고 할까요?
 [35] 己酉卜, 亘貞 : 呼多犬衛. (『合集』5664)
 己酉일에 짐을 치고, 亘이 문습니다 : 여러 犬들에게 방위하라고 명령할까요?

[34] 복사는 왕이 𠂔라고 불리는 犬에게 남쪽을 순시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35] 복사는 여러 명의 犬인 多犬에게 국토를 방위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인지 묻고 있다.

이처럼 犬은 수렵지의 상황을 관찰하여 사냥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으며, 사냥이 시작되면 원활한 사냥을 위해 왕 및 귀족들을 수행하며 인도했다. 2차로 방국 정벌 및 방위, 순시 활동에도 동원이 됐다는 것은 이들의 업무 특성이 군사적인 업무와도 직결되어 유사시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3) 馬

상대에 말은 주로 군사와 사냥에 쓰였다. 향시 방국 및 유민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계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인 말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왕의 오

락 활동인 수렵에서 발 빠른 짐승들을 포획하기 위해 이들과 견줄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유일한 수단도 말이다. 상 왕실 및 각 지역에는 ‘馬’라고 불리는 관직이 있었다. 이들은 말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을 타고 왕의 수렵 활동 및 전쟁에 참여하였다.

갑골문의 馬자는 ‘𠂔’(『鐵』2.2)모양으로 말의 긴 머리와 갈기를 측면에서 묘사한 형상이다. 本義인 ‘말’의 뜻과 ‘말을 주관하는 관리명’으로 쓰였다. 馬는 말을 타고 싸우는 武官으로 주된 임무는 군사 활동이다. 그러나 평상시엔 왕의 수렵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의 수렵 활동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馬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특유의 기동력과 말 위에 앉아 멀리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를 통해 동물을 발견하는데 용이했으며 이러한 점은 수렵 활동 시 여러 임무를 가능케 했다.

- [36] 呼多馬逐鹿獲。(『合集』5775正)
여러 馬들에게 명령하여 사슴을 좇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 [37] 貞：其令馬亞射鹿。(『合集』26899)
문습니다：馬亞에게 사슴을 쏘라고 할까요?
- [38] 惟多馬呼射擒。(『合集』27942)
여러 馬들에게 쏘라고 명령하면 잡을까요?
- [39] 惟馬呼射擒。(『合集』2294)
馬에게 쏘라고 명령하면 잡을까요?

[36] 복사는 馬가 사슴을 좇아가 잡을 것인지를 묻고 있다. 발 빠른 짐승인 사슴을 좇아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은 馬官의 특성이기도 하다. [37], [38], [39] 복사에서 馬의 우두머리인 馬亞와 馬, 多馬는 활을 사용해 수렵 활동을 하는데, 馬官이 활을 사용하는 기록은 수렵 활동에서만 보일 뿐 군사 활동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수의 위치 상 수렵이나 전쟁 시 활의 사용은 당연한 수단일 것이다.

- [40] 今日辛亥馬其先不遘大…… (『合集』 27949)
오늘辛亥일에 馬가 앞서 가는데 큰(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 [41] 貞：馬其先其遘雨。(『合集』 27950)
문습니다：馬其先其 앞서가는데 비를 만날까요?
- [42] 戊申卜：馬其先王兌從…… (『合集』 27945)
戊申일에 짐을 칩니다：馬가 왕 보다 앞서 가 좇을…

위의 복사를 보면 상왕은 수렵 활동 시 馬를 먼저 사냥터로 보내 그 지역의 기상상태를 관찰한 후 뒤를 좇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내려와 후대에는 '先馬'라는 관직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는 사냥 시 비를 만나 야기되는 갖가지 사고와 번거로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¹⁶⁾

馬가 평상 시 왕의 오락 활동인 수렵에 참여했다면, 전쟁 시엔 이들 특유의 빠른 기동력과 말의 등에서 내려다보며 싸울 수 있는 위치적인 장점을 이용하여 교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망치는 적군을 좇아 싸우거나 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의 임무를 펼쳤다.

- [43] 甲戌卜，殷貞：我馬及戔¹⁷⁾。(『合集』 6943)
甲戌일에 짐을 치고 殷이 묻습니다：우리 馬부대가 싸울까요?
- [44] 癸巳卜，賓貞：多馬遘戔。(『合集』 5715)
癸巳일에 짐을 치고 賓이 묻습니다：여러 馬가 만나 싸울까요?
- [45] 丁亥卜，貞：多馬從戔。(『合集』 5716)
丁亥일에 짐을 치고 묻습니다：여러 馬가 좇아가 싸울까요?

위 복사에서 '及戔', '遘戔', '從戔'의 戔은 모두 '싸우다', '정벌하다'는 뜻으로,

16) 于省吾, “古者王公外出, 常有導馬于前, 沿習既久, 則先馬爲專職之官名矣。周器令鼎：令采奮先馬走。”『釋先馬』,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17) 胡厚宣은 戔자를 '戎'이며 동사로 쓰일 땐 '伐'이라고 풀이했다. 「甲骨文所見殷代奴隸的反壓迫鬪爭」, 『考古學報』, 1954.

각 복사에서 馬, 多馬는 이미 교전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 [46] 壬戌卜, 狄貞 : 唯馬亞呼執. (『合集』 28011)
 壬戌일에 짐을 치고 狄이 묻습니다 : 馬亞에게 포로를 잡으라고 명령할까요?

위 복사의 馬亞는 '馬官의 대장'이다. '亞'란 왕의 형제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馬官의 가장 높은 계급, 즉 이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가 된다.¹⁹⁾ 상왕은 그에게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잡으라고 명할지를 짐쳐 묻고 있다. 다음은 방어 활동에 관한 복사이다.

- [47] □寅卜, 賓貞 : 令多馬羌禦方. (『合集』 6761)
 □寅일에 짐을 치고 賓이 묻습니다 : 多馬羌에게 명령하여 방국의 침입을 수비하게 할까요?

多馬羌은 '羌人들로 구성된 여러 馬官'을 뜻한다. 왕은 이들로 하여금 방국의 침투를 수비하게 할 것인지 묻고 있다.

이 밖에 왕은 여러 馬가 변방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들의 우두머리인 多馬亞에게 명령을 내려 그 지역의 군사 및 경제 상황 등을 살피고 보고토록 했다.

- [48] 甲辰卜, 貞 : …以多馬亞省在南. (『合集』 564正)
 甲辰일에 짐을 치고 묻습니다 : …多馬亞로 하여금 남쪽을 순시하도록 할까요?

위의 복사들을 살펴본 결과 馬는 수렵 및 전쟁 활동에 적극 투입되어 세분화된 여러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수렵 시 향

18) 王字信, 「甲骨文'馬', '射'의再考察-兼駁馬,射與戰車相配置」.
 19) 馬亞의 亞는 왕의 동성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馬官 중의 왕족출신을 뜻한다. 따라서 계급 또한 매우 높았다.
 “亞, 多亞, 多馬亞等皆爲是王之同族兄弟集團。” 徐中舒, 『甲骨文字典』, p.1524, 王字信, 「甲骨文'馬', '射'의再考察-兼駁馬,射與戰車相配置」.

상 왕보다 앞서 행동했고, 발 빠른 짐승들을 위주로 사냥했다. 전쟁 시엔 다양한 공격을 펼치는 한편 적군의 포획, 수비, 순시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 말의 이용 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것과 이들을 주관하는 관리의 중요도 또한 높았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4) 馬小臣

군사 및 수렵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馬官 외에 말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馬小臣이 있다.

[49] 丙寅卜：東馬小臣…… (『合集』 27881)

丙寅일에 짐을 칩니다：馬小臣이……

[50] ……來告：大方出伐我師東馬小臣…… (『合集』 27882)

……가 와서 고합니다：大方에서 우리 군사 師를 치는데 馬小臣이……

여기서 馬小臣은 '小馬臣'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小衆人臣'을 '衆人小臣'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은 예이다. 갑골 복사에서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전쟁이나 수렵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50] 복사에서 전쟁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위에서의 小臣과 관련된 여러 관리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여, 馬小臣을 단지 말을 관리하는 직종으로 추측한다.

3) 의료관

상대는 이미 문명사회로 진입한 시대였다. 하지만 무속신앙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질병을 上帝나 祖上이 내린 재앙이라고 여겼다. 신이 내린 재앙인 질병을 巫術으로써 치료하는 것은 당연했다. 질병에 걸리면 무술을 행하는 관리인 巫가 나서 굿과 같은 의식을 치루고 그들과 정을 나눴던 조상께 치유를 간구하였다. 이러한 의술 행위는 수동적이고 원시적이었지만 이 외에 적극적으로 질병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존재했다. 그 당시에는 이미 40여

종의 내과, 외과적 병증이 있었으며 정형외과의 치료와 안마, 쑥뜸, 침 치료까지 다양한 의술이 행해졌다.²⁰⁾ 이러한 의료 수준으로 가늠할 때 전문적으로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오늘날 의사 개념의 직종이 있었을 것이다. 갑골 복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직종의 관리로 추정되는 小疾臣이 있다.

(1) 小疾臣

小疾臣은 의료계통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갑골문의 '疾'자는 외상과 내상, 두 가지 뜻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중병에 걸리면 앓아 누우므로 침상에 누워 땀을 흘리는 모양인 '𠄎'(『甲』134)자로 내상을 나타내었고, 옆구리에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은 형상인 '𠄎'(『乙』29)를 통해 외상을 나타내었다.²¹⁾ 두 자는 모두 '질병'을 뜻한다. 小疾臣은 이러한 질병을 전담하는 小臣으로 의료계통에 종사한다. 또한 상대 왕실의 질병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이기도 하다.²²⁾ 갑골 복사에서 이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1] [貞] : 小疾臣不其得. (『合集』5601正)

[문습니다] : 小疾臣이 얻지 못할까요?

[52] 貞 : 小疾臣得. 一. (『合集』5600)

문습니다 : 小疾臣이 얻을까요? 한번 물었다.

위의 복사는 “小疾臣이 얻을까요?”를 묻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小’자와 ‘臣’자 가운데 주관하는 분야를 뜻하는 명사를 넣어 관리명을 만든 것처럼, 小疾臣이라는 의료계통의 관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 己巳卜, 貞 : 王夢 玁 不佳(唯)循小疾臣. (『合集』5598)

己巳일에 점을 치고 貞이 문습니다 : 왕이 꿈에 옥을 보았는데 小疾臣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까요?

20) 梁東淑, 『甲骨文解讀』, 書藝文人畫, 2005, pp.845~896.

21) 위의 책, p.849.

22) 宋鎮豪, 『夏商社會生活史』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p.748~749.

[54] 呼□小疾臣□. (『合集』5599正)
小疾臣에게 ……를 명할까요?

상대인들은 꿈꾸는 것을 불길한 것으로 생각하여 재앙이나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²³⁾ [53] 복사에서 왕이 꿈을 꾸자 小疾臣을 찾아가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통해 小疾臣이 의료계통을 주관하는 관리, 즉 의료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4]에서 왕이 小疾臣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 小疾臣은 왕 곁에서 일하는 주치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Ⅲ.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통해 상대에는 이미 생활, 경제 분야에 있어 발달된 관리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이나 목축, 수렵은 그 당시 경제 공급의 주된 방법이었으므로 각 분야마다 세분화된 전문 관리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었다. 농업에서는 小耜臣이나 小衆人臣, 小吏臣이 갑골문에 보인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자세한 활동상은 살펴보기 어려웠으나 약간의 복사와 자해를 통해 그들의 존재와 직무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목축, 수렵계통에 종사하는 관리인 牧과 犬, 馬는 그들 본연의 의무 외에 군사의 기능을 겸비하였다. 동물들을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적 기능을 섭렵해야 했을 것이다. 상왕은 이러한 기능을 본 직업에만 종사하게끔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파견하여 전쟁이나 수비에 동원하는 유동성을 보였다. 馬小臣은 활동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복사가 미미하여 단지 말을 관리하는 직종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으나 전쟁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의료계통에 종사한 관리에는 小疾臣이 있는데 이들의 복사 또한 적어 구체적인 활동 상황은 살펴볼 수 없었다. 그러나 상대의 의술 수준으로 보아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관은 분명 존재했을 것이며 의료 계통 관리인 小疾臣이 이를 담당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23) 梁東淑, 『甲骨文解讀』, p.883.

상대의 관리체제는 이후 세대인 周代에 비해 관리의 수도 적고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바 외의 다른 업무에도 투입될 만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부분이 보였으나, 어느 정도 나라의 생활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밑거름이 되어 주대로 이어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본 고에서는 비록 생활 경제 분야에 해당되는 관리들로만 다루어 졌고 자료 또한 부족했으나 향후 새로운 갑골문이 발견되어 이들에 관한 더욱 자세한 고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參考文獻

- 高明, 「論商周時代的臣和小臣」, 『盡心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郭沫若, 『郭沫若全集·歷史編』第一卷, 人民出版社, 1982.
-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農業」, 『殷都學增刊』, 1985.
- , 「甲骨卜辭中所見的‘田’, ‘牧’, ‘衛’等職官的研究」, 『文史』第19輯, 1983.
-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3.
- 聶玉海, 「卜辭中‘衆’與周之‘國人’比較」, 『殷都學刊』第4期, 1985.
- 宋鎮豪, 『夏商社會生活史』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 『中國風俗通史』夏商卷, 上海文藝出版社, 2001.
- 安毅, 「論商代青銅酒器的造型、裝飾美」, 『貴州民族學院學報』, 2001.
- 梁東淑, 『甲骨文解讀』, 書藝文人畫, 2005.
- 楊升南, 『商代經濟史』, 貴州人民出版社, 1992.
- 王宇信·楊升南, 『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 王宇信, 「甲骨文‘馬’, ‘射’的再考察-兼駁馬,射與戰車相配置」, 『第三屆國際中國古文字學研討會論文集』, 1997.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1996.
- , 「釋先馬」,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 劉興林, 「殷商以田獵治軍事說質疑」, 『殷都學刊』, 1997.

- 李亞農, 『殷代社會生活』, 上海人民出版社, 1955.
- 張亞初·劉雨, 『西周金文官制研究』, 中華書局, 1986.
- 張亞初, 「商代職官研究」, 『古文字研究』第13輯, 中華書局, 1986.
- 趙誠, 『甲骨文簡明辭典』, 中華書局, 1999.
- , 『甲骨文与商代文化』, 遼寧人民出版社, 2001.
- 陳建敏, 「甲骨文金文所見商周工官工奴考」, 『學術月刊』第2期, 1984.
-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2004.
- 陳春會, 「商代青銅器宗教思想探析」, 『考古與文物』第6期, 2004.
- 許慎 撰·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2003.
- 許進雄 著·洪熹 옮김, 『중국고대사회』, 東文選, 2003.
- 胡厚宣, 「甲骨文所見殷代奴隸的反壓迫鬭爭」, 『考古學報』, 1954.
-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4.
- , 『民衆 國語辭典』, 民衆書林,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Life-economic's government official of Shang
Dynasty
- shown in Shell and Born Characters -

Lee Kyung

A Chinese Character we have been using was comple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any shapes of characters used in China for several thousand years. We can say that Shell and Born Characters is the first one of the Characters which has formal form. The discovery of Shell and Born Characters had made Shang Dynasty regarded as legendary age before jump into the

historical period. And it was to be very useful to make a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of Shang Dynasty together with the excavation of archeological things.

Shell and Bone Characters generally described natural phenomenon and human society, as it were, religious service, battle, hunt, trip, outstanding weather including typhoon and flood, fortune, etc. The religious service was one of ways of keeping human being correspondance with God. Especially, while wanting to get a kinds of bless, human being who followed the leader as their king have excuted religious service for their ancient in Shang Dynasty.

Furthermore, We can not but find out the religious service accompanied with numerous kinds of sacrifice in utmost quantity from Shang Dynasty only. The following facts were looked into through the subject of this Thesis:

The general outlook in Shang Dynasty such as relationship between the farming, livestock, hunting, medical treatment and the royal family of Shang Dynasty, and an official post who took care of his roles. The kind of farming official post which are Xiao-Ji-Chen, Xiao-Zhongren-Chen, Xiao-Yi-Chen. The kind of livestock, hunting official post which are Mu, Quan, Ma, Ma-Xiao-Chen. The kind of medical treatment official post which are Xiao-Ji-Chen.

Key words Farming, Livestock, Hunting, Medical treatment, The Shang Dynasty, A government official

투 고 일 : 2008년 1월 9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2월 18일
--